

“국민연금, 미루고 더 받으리”...연기신청 급증

10년이상 가입해야 자격 최대 5년 연장 年 이자 7.2% 더 지급 6년세 신청자 39배 증가...‘부분 연기’ 시행, 기간 선택 폭 넓혀

지난 2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김모(61)씨는 다음 달부터 매달 89만5800원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그는 연금 수령을 5년 늦추겠다고 연금공단에 신청했다. 수령을 늦추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5년 뒤인 2020년 8월부터 사망 때까지 그가 타게 될 연금은 월 121만8280원이다. 기존 연금액 89만5800원에 가산금 32만248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이자와 함께 받는 ‘연기연금 제도’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기간에 따라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연금에 덧붙여주는 제도다.

2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불과하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2029명, 2012년 7746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8181명이 됐다. 올해는 5월 현재 이미 4103명에 달한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작스레 늘어난 것은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 29일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연기연금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에는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는 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62~66세에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늦게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까지 덧붙여진다. 가령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금을 받을 수 있는 61세 가입자가 연금액 중 50%(40만원)를 내년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올해 매월 40만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자액을 더한 82만9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더 내거나, 과거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식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연기신청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이 ‘평생월급’ 개념으로 바뀌면서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8월 증시 전망

美 금리 9월 인상 가능성 4분기 경기회복 기대 높아 증시 조정기 이용 비중 확대를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3대 불확실성 중 그렉시트 우려는 해소된 반면 기업실적 부진과 미국 출구전략 시행 우려는 8월에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지난 7월 중 KOSPI의 가격 바닥은 확인됐으나, 기간조정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증시의 펀더멘탈은 4분기 경부터 개선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3분기 중 조정을 이용한 주식비중 확대전략이 유효하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전후로 증시의 관심이 유동성에서 펀더멘탈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출 및 내수 약화, 중국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2분기 기업실적은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및 연간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당초 전망치가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던 만큼 기술적인 눈높이 교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먼저, 2015년 MSCI Korea의 컨센서스 영업이익률 7%는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한다. 적어도 1%포인트 내외의 하향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조선 등에서 big bath 우려 등이 재발되는 등 경기민감업종의 업황 부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실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일련의 우려를 반영하더라도 2011~13년 수준의 영업이익률로 회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3분기 중 조정을 이용한 주식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BOJ(일본중앙은행)와 ECB(유럽중앙은행)의 공격적 통화정책 영향과 한국의 불황형 경상수지흑자 누적 등으로 상반기까지 유로화와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 일본은 설비투자회복과 민간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등 지난해 4월 소비세 인상 충격 극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BOJ의 QQE3(양적·질적 통화완화) 연내 실시 가능성은 크게 후퇴했다. 유로존 또한 독일과 이외 모든 지역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하는 등 펀더멘탈이 개선 중인 가운데 그렉시트 우려가 해소됐다.

한국 자체적으로는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정책 등으로 원화의 약세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당사는 올해 연말 원·달러 환율을 1200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수준은 수출기업의 마진개선 측면에 긍정적이다.

미국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주식시장(9월)과 채권시장(12월)의 다른 견해는 점차 해소될 것이다. 당사는 9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높게 유지될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압박할수록 경기회복 기대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증시의 급격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비중 축소로 대응하기보다 포트폴리오 전략의 변화를 권고하는 것이다. 채권시장의 낙관적 편향이 해소되면서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재개될 경우, 고평가 주식의 차익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점진적인 고(高)PER 주식 축소를 권고한다. 동시에 deep valuation(주가가 기업 청산가치를 밑도는 현상) 주식 매수 병행이 필요하며 이는 4분기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전주가 5만900원...상장후 최고가

2년7개월만에 78% 상승...삼성전자 이어 시총규모 국내 2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은 지난 31일 자사 주가가 5만 900원으로 장을 마감, 지난 1989년 8월 10일 국내 증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의 종전 최고가는 1999년 6월 28일의 5만5000원으로, 16년 1개월여 만에 최고가 기록이 바뀐 것이다.

지난 2012년 12월 조환의 사장 취임 당시 주가는 2만8650원으로, 약 2년7개월 만에 77.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18조 4000억원에서 32조7000억원으로 14조3000억원 증가했고, 이는 삼성전자에 이어 시총 규모 국내 2위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조 사장 취임 후 계속된 경영개선과 기술혁신으로 5년간 지속해온 적자 고리를 끊고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작년에는 순이익 1조3999억원(별도회계 기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흑자 경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전은 덧붙였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본사를 광주·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는 나주 지역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빛가람 에너지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세계 22개국에서 36개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외 사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전은 2020년까지 전사 매출액의 15%를 해외 사업을 통해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지역 다변화와 사업영역 다각화 등으로 ‘KEPCO 글로벌 에너지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조환의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역 물놀이시설·영암마트 이용시 할인

광주은행 카드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이용시 광주카드 현장할인 이벤트와 영암마트 이용고객에 대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 내 물놀이 시설인 나주충흥위터락, 화순군호아쿠아나, 여수시 오션위터파크 등의 입장권 구매시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입장권 금액의 30~35%를 현장에서 할인해 준다. 더불어 영암마트에서 광주카드로 5만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모든 병의원종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며, 특히 휴가철을 이용해 진료 수요가 높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성형외과, 치과, 종합병원에서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태항 상무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투데이 경매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 지역 도로인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광산구 북동동 주유소 부지 나주~송정간 도로 위치
대지 1988㎡ 건물 517㎡
감정가 8억 8천 5백
최저가 8억 8천 5백

1.광주 평동공단 공장
대지 2073㎡ 건물 1187㎡
감정가 16억 3천
최저가 9억 1천

2.화순 도곡면 천일리 공장
대지 2811㎡ 건물 1474㎡
감정가 7억 6천
최저가 5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30% 할인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과거를 빛낸 50년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개령동 흥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